

제48호 1987년 6월 20일

물리치료회보

삼남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호주 시드니 WCPT 총회에 다녀와서



협회장 김용천

5월 17일 아침 8시 반, 마침내 내가 탄 싱가포르 항공 SQ 021호는 시드니 국제공항에 가볍게 내려앉았다. 지난 밤 7시에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새벽 6시경 호주 Melbourne 공항에 도착하여 한 시간 정도 기착한 후 다시 이륙하여 1시간 반 정도 날아서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여기서 드디어 라는 말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은 Sydney 도착까지 여러 번 이륙과 착륙을 거듭해야만 했던 이유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미인(?)인 우리 집 사람의 전송을 받으며 나를 수행한 전북지부 정태훈 선생과 김포공항을 이륙한 것이 5월 16일(토) 오전 11시 45분, 두 시간 후 대만 “창카이시” 공항 착륙, 한 시간 후 다시 이륙, 5시간 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착륙, 비행기 갈아타고 7시경 이륙, 새벽 6시경 “멜버른” 공항 착륙, 한 시간 후 이륙, 드디어 “시드니” 공항 착륙, 이렇게 된 것이다. 그 덕에 비행기 갈아타고 내리는 법이라든가 이착륙시 기내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요령같은 것이 점차 세련되어지고 또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의 대기시간에 각 공항내의 면세점(tax free shop)에 들러 그 나라 마다의 특산품이라던가 독특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싱가포르 “Changi” 국제공항의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제반시설도 훌륭하지만 김포공항의 10배 정도는 될 것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크고 깨끗하여 가히 손색없는 국제공항이라는 이미지를 풍겼다.

시드니에 도착한 후 입국수속을 마치고 짐찾고, 환전하고 나니 오전 11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대합실로 나왔다. 마침 대합실 한 구석에 “WCPT congress information desk”가 마련되어 있고 황홀한 미녀 두 사람이 친절하게 안내해주는대로 택시를 타고 우리 두 사람은 미리 숙소로 예약 신청하였던 “Sydney University”의 기숙사로 향했다. 그 두 미녀의 친절한 안내의 말씀인즉 지금 곧 숙소로 가서 방배정을 받고, 짐 풀고 오후 4시까지 Hilton Hotel에 마련된 WCPT총회본부에 가서 등록을 필하라는 것, 택시를 타고 20여분동안 Sydney Univ.로 가는 동안 처음 대하는 거리의 풍경을 흥미롭게 구경하였다. 영연방국가들이 전부 그러하듯이 자동차의 좌측 통행이라던가 영국풍의 중후한 느낌을 주는 석조건물들, 그 사이 사이 벽보나 선전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은 2, 3층의 낡은 건물도 흔하고 걸어다니는 사람 별로없는 한적한 거리의 낙엽지는 가로수(호주는 지금 늦가을 철이다) 등등.

우리가 도착한 Sydney Univ.의 Women's College 기숙사는 붉은 벽돌로 지은 오래된 3

층 건물로서 Sydney Univ. 구역의 한 모퉁이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은 잘 정돈된 잔디마당과 울창한 나무숲으로 싸여 있는 아주 조용한 곳이었다.

우리 두 사람은 각각 배정받은 3평 정도의 작은 방에 짐을 풀고 간단히 샤워한 후 옷을 갈아입고 시내 번화가에 있는 Hilton Hotel로 가서 WCPT총회본부에 등록을 하고 그곳에서 주는 가방을 받았는데 그 가방 속에는 여러 가지 안내책자와 학술논문집, Schedule book(각국 대표들이 부착해야 하는 “Voting Delegate” 표시가 달린 명찰), 그리고 3장의 파티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WCPT총회본부는 38층 높이의 Hilton호텔 8층과 9층 전부를 빌렸는데 8층에는 넓은 회의실 1개, 중간 회의실 2개, 넓은 방 3개와 가운데 홀이 있는 구조이고 9층은 전부 넓은 홀로서 이곳에서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세계 각국의 첨단 물리치료기구들을 각 회사별로 전시, 선전하는 장소로 제공되어 있었다. 초대장의 내용은 그날 저녁 Sydney Opera House에서 열리는 Opening Ceremony 초대장(특히 나에게서 한국대표로서 호주 총독부처와의 특별 면담 초대 내용이 들어있었다), 월요일 저녁 6시반 Sydney시가 속해있는 New South Wales 주지사가 초대하는 환영파티 초대장, 또 한 장은 목요일 저녁 6시반 호주 물리치료사 협회장이 주관하는 파티의 초대장 등이었다.

그날 저녁 7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Sydney의 명물 Sydney Opera House에서 Opening Ceremony가 열렸다. 전세계 40여개국에서 참가한 각국 대표를 포함하여 일반 물리치료사들까지 무려 2,200여명의 넓은 객석을 완전히 매운 가운데 단상에는 호주 총독부처, WCPT회장, 호주 물리치료사 협회장이 자리잡았고 그 뒤쪽에 WCPT회원국의 각 나라 국기가 엄숙히 세워져 있었다. 그 가운데 태극기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 지고 가슴 뿌듯한 감정을 느낀 것은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진정한 애국자가 된다는 그런 일련의 마음가짐이 아니겠는가?

나는 마침 「마쓰무라」 일본협회장, 「리아오」 대만협회장과 반갑게 만나 인사하고 셋이 나란

히 앉았다. 식은 먼저 WCPT회장의 개회사, 호주 총독의 축사, 호주협회장의 환영사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Opera House 전속 Orchestra가 두 곡의 관현악 협주곡을 연주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두 시간 정도로 끝나고 객석 밖의 넓은 홀에서 환영파티가 열렸다. 2,200명이 모두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술이 준비되어 있었고 수십명의 웨이터들이 술과 음식을 쟁반에 받쳐들고 다니면서 서비스를 하고 우리들은 서로 가까이 있는 각국의 물리치료사들끼리 인사하고 환담하는 그런 분위기속에서 나는 서서히 국제회의의 참다운 분위기를 익혀갔다.

나와 일본, 대만회장들은 같이 있었는데 30분쯤 후에 안내원이 와서 호주 총독부처의 접견순서가 되었음을 알리고 우리 세 사람을 안내하여 다른 홀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이미 접견을 끝낸 다른 나라 대표들이 따로 모여서 환담하고 있었고 총독부처의 한구석에서 각국 대표들을 한 사람씩 인사하고 접견하고 있었는데 호주 물리치료사협회장이 한 사람 씩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리아오」 대만협회장 다음으로 접견했는데 악수를 마치고 “뵙게되어 영광입니다”라고 했더니 총독은 내년도에 88 Seoul Olympic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파티는 밤 11시경에 끝났는데 나와 같이 참석했던 정태훈 선생님과는 Opera House 도착 직후부터 헤어져서 서로 찾지 못하고 생사(?)를 몰라 애태우다가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야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헤프닝도 있었다.

다음날 5월 18일(월)부터 제 10차 WCPT총회 및 학술대회는 시작되었다. “Toward 2000”이라는 주제로 5월 22일(금)까지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각 분과별로 진행되었다. 학술논문 발표는 56편의 논문이 하루에 10편 내지 12편씩 두 장소에서 시간별로 발표되었고 각국 대표들은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 General Meeting에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했다.

(다음호에 계속)